

재일조선인 미디어와 미점령군 검열

고바야시 소메이

이번 강연에서 고바야시 소메이 강연자는 재일 조선인 미디어연구의 의의와 그 연구 방법, 미점령군 검열의 실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강연자는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생생한 연구 조사 방법을 제시하면서 일본 미디어 연구사에서 소외되어온 재일 조선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1. 재일조선인 미디어의 의미

이때까지 미군 점령기 재일 조선인 미디어는 존재적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미디어 연구에서 망각된 미디어로 소외되어 왔다. 재일 조선인은 일본과 남조선에 걸쳐 미군점령이라는 이중의 경험이 중첩되어 있는 곳에서 절충되어온 존재이다. 또한 재일 조선인 미디어는 해방 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독립과 일본 및 미국의 억압 속에서 기본적으로 2차 대전 이전의 배경을 가지고 성립되었다. 남조선과 일본의 양쪽에서 이루어진 미군점령은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해명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재일 조선인 미디어 연구의 가치가 존재한다.

본 강연에서는 첫째, 미디어를 커뮤니케이션의 기술로 보는 것과 둘째, 미디어를 민중의 사상, 탈식민지 투쟁 등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정치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점령군 하에 미디어 검열의 일단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국적 미디어 연구사의 외연을 넓히고, 조선인이 본래적으로 가진 초경성(超境性) 회복을 위한 미완의 시도를 하고자 한다.

2. 프랑계 문고의 사료적 가치

(1) 프랑계 문고란

미군 점령기에 있어 재일 조선인 미디어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가장 유용한 사료는 메릴랜드 대학의 프랑계 문고사료라고 할 수 있다. 프랑계 문고는 메릴랜드 대학 혼베이크(Hornbake) 도서관 안에 있는 프랑계 문고사료를 말한다. 프랑계 문고에는 1945년부터 1949년까지에 걸쳐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 도서, 잡지, 보도 사진, 포스터 지도 등이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는 미점령군 산하 민간검열국(CCD: Civil Censorship Detachment)에 대해 검열을 받기 위해 제출된 인쇄물이다. 재일조선인과 재일화교가 발행한 출판물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프랑계 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신문 잡지는 동경의 국회도서관헌정자료실, 카나가와 도서관,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와세다 대학도서관에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사진의 형태로 열람이 제공되고 있다.

(2) 재일 조선인 출판물 현황

프랑계 문고에는 1945년 가을부터 1949년 봄까지의 단기간에 발행된 124 종의 재일조선인 신문이 소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단기간에 이 정도로 다양한 신문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재일 조선인이 갖고 있던 미디어 소유, 접촉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재일조선인 잡지의 경우 미점령군 문서에는 거의 없고, 재일조선인 측의 사료에서 미루어 짐작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1949년 간행된 문화연감에 따르면 1945년 12월 1일에 '인민문화'가 창간되는 한편, '조선시', '고려문예'가 발행되었다.

재일 조선인 서적의 경우 프랑계 문고에는 전체 30권정도로 남아있는 사료가 극히 적다. 그렇다고 해도 조총련이 출판한 교과서 등 몇몇의 가치 있는 사료가 존재하지만 이를 활용한 연구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3. 미디어 검열의 개요

(1) 미디어 검열의 주체, 대상, 범위

미점령기 하에 일본에서는 CCD가 미디어 검열을 관할하였다. CCD 산하에는 검열실행부서인 '신문, 영화, 방송부'(PPB: Press, Pictorial and Broadcasting Division)이 설치되어 1945년 9월부터 미디어 검열이 개시되었다. CCD의 검열대상은 매스미디어와 퍼스널 미디어가 있는데, 전자에는 신문, 잡지, 영화, 레코드, 등이 포함되고 있었고, 후자에는 전보, 전신, 전화, 우편이 포함되어 있었다.

CCD에 따른 검열지역으로 제1지구부터 제4지구까지 나누어 각각에 본부를 설치하여 검열을 실행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제 4지구에 남조선 지역이 CCD에 의한 검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점령기 일본과 조선에 대한 검열은 일체화된 형태로 디자인되어 실행되었던 것이다.

(2) 방법

CCD에 의한 매스미디어 검열에는 사전검열과 사후검열의 두 종류가 있었다. 사전검열의 경우, 출판사와 신문사는 교정본을 2부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제출된 교정본은 일본인 혹은 조선인 검열관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어 상사인 미국인 검열관에게 회부된다. 미국 검열관은 검열의 절차에 따라 '코멘트 시트'를 작성하여 일부삭제, 전문삭제, 출판불허가를 판단하게 된다. 코멘트 시트에는 문제 부문의 판단결과 등이 명기되어 있다. 교정본 중 한 부는 CCD에 보관되고 다른 한 부는 출판사와 신문사에 반환된다. 프랑계 문고에 남아있는 사료는 CCD에 보관된 자료이다. 사후 검열의 경우, 출판 후 당해 출판물을 CCD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위반이 발견되면 출판사는 주위를 받게 되거나, 시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4. 재일 조선인 미디어 연구의 과제

(1) 연구 방법에 대한 과제

조선인 미디어 연구는 여전히 기초작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공동연구를 통한 사료의 발굴과 방대한 재일조선인미디어 기사의 발굴과 미점령군 문서 분석을 토대로 사료의 데이터 베이스화가 필요하다.

(2) 재일 조선인 미디어 연구의 중요 과제

재일 조선인 미디어 연구를 통한 중요 과제는 먼저 재일조선인 민중의 사상은 무엇인가를 밝혀내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일 조선인에게 있어서 미디어, 미국, 조국, 통일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망각된 기억과 봉쇄된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이 밝혀내는 것이 큰 과제이다. 두 번째 과제로, '운동사'를 넘어 역사서술의 가능성으로서 재일 조선인이 살아온 세계를 서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Q&A

Q 재일 조선인 미디어에 대한 검열은 일본 일반 미디어에 대한 것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A 자료를 찾아보면서 미군의 단속은 조선인 미디어에 대해 일본인 미디어보다 더욱 심하다고 느꼈다. 특히, 북한 관련 기사에 더욱 민감했다.

Q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재일 조선인에 대한 미디어 검열이 심해졌는가?

A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던 해인 45년에서부터이다.

Q 민주조선 등이 어떤 기준으로 잡지로 분류되었는가? 내용 측면에서는 잘못된 분류방식일 수 있다.

A 미군 사령 본부가 분류한 카테고리 기준이다. 그렇기에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Q 재일 조선인의 활동을 일국(일본)의 카테고리로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것 아닌가?

A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일국주의를 버리고 아시아적 맥락에서 미디어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재일 조선인 미디어를 일본 미디어사에 넣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위험성을 넘어서 재일 조선인 미디어가 가지는 민족적 가치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고자 한 것이다.